

특별기고

호남 지방의 문화 창달과 정론의 기수 - 광주일보 창사 66주년을 축하하며



한승원 소설가

광주·전남 혹은 호남 지방의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호남 문화 창달과 전라도 정신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분투하여 온 광주일보 창사 66주년을 축하한다. 광주일보를 나는 광주·전남(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정론지라고 생각한다. 이 신문은 세계사 속에서의 존재 의미와 당위성과 소명을 굳게 믿는다. 때문에 나는 광주일보가 장간했을 때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이 신문을 정기 구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날마다 중앙에서 발행되는 보수적인 신문 하나와 진보적인 신문 하나를 읽지만, 반드시 광주일보를 읽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중앙지 둘을 보는 것은 한반도 안에서의 세상살이의 균형 감각을 잡으려는 것이고, 광주일보를 보는 것은 나의 향토에 대한 의식을 올바르게 가지려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는 한계와 열악한 경제적인 지반 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정론지로서의 구실, 호남 지방의 문화 창달의 소명을 충실하게 해 왔다고 나는 믿는다. 서울·부산 등지의 출향인들 가운데 많은 뜻 있는 이들은, 고향 소식을 알기 위해 광주일보를 구독한다고 들었다. 나도 서울에 살 때는 그랬었다. 그것은 광주일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보도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말해 주는 까닭이기도 할 터이다. 광주일보는 격랑의 현대사의 굽이굽이에서 이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신문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고 애써 왔다.

바야흐로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쭉아 오고,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지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글로벌 4차 산업의 시대에 광주일보가 나아갈 길은 가파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종이 신문으로서의 광주일보는 어떻게 이 파고를 헤쳐 나갈 것인가. 다른 많은 매체들을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도, 그러나 광주일보를 반드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할 무엇인가를 신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일보를 반드시 보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을 신는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광주·전남 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주일보가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먼저 광주일보는 호남 정신 혹은 전라도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호남 정신(전라도 정신)이란 무엇인가.

올해로 이 지역이 전라도라고 불린 지 천 년째이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에 호남이 있어서 이 나라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라 존망의 위기에 의병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호남이었고, 호남 민초들과 더불어 애적을 물리쳤던 것이다.

조선조 후기,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

들이 척양척왜·보국안민·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고, 일제 식민지였을 때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해방 이후 군사 독재에 피로써 항거하고 민주화를 이룩하게 한 곳이 광주·전남이었다. 이제 광주는 세계 속에서 민주·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있다. 그것은 바로 호남 정신(전라도 정신)으로 인한 것이다.

전라도 정신이란 권력 가진 세력에게 당하고 또 당하다가 마지막에 피를 뿜으며 대드는 저항 정신, 민주·평화정신이다. 그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을 표방하고 투쟁한 정치인 김대중을, 민주화를 꽃 피운 대통령으로 성장하게 한 훈이며, 그것은 촛불이 만들어 낸 진보적인 새 정부로 하여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 낸 뿌리인 것이다.

장상에 가서는 확연 자랑하지 말고, 진도에 가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고 했으며, 장흥에 가서는 소설 자랑하지 말고 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담양의 가사문학과 해남 고산 윤선도의 시조문학을 빼버리면 한국 문학사의 열구리가 텅 비게

된다. 그러한 전라도에 의해 만들어진 광주라는 도시는 예향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광주일보는 전라도 정신과 전라도의 인문학적 성지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광주·전남 지방의 정치적·경제적 맥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짚어 주어야 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전라도 자존심의 꽃인 문화 예술 활동의 광장이 되게끔 해야 한다.

바야흐로 지방 분권이 담론화 되고 있다. 그것은 정치뿐 아니고, 경제와 문화 예술에 있어서도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분권으로 인해 광주·전남(호남)의 광장 정치, 광장 경제, 광장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의 중심에 광주일보라는 광장이 자리매김해 있어야 한다.

지방 분권이란 지방의 정치, 지방의 경제, 지방의 문화가 융성해야 나라가 융성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라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지방 분권 시대의 광주·전남, 호남 한반도에 광주일보가 자리매김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 4·19혁명 기념식 19일 오전 광주 빛고을시민 문화관에서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들, 각계 대표 등 2500여명이 제58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컨설팅 전담 GFD 본격 활동

47명에 임명장 수여식

광주지역 명품강소기업에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GFD(Gwangju Field Director) 47명이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1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명품강소기업 GFD(Gwangju Field Director)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전문가 31명, 민간 컨설턴트 및 산학협력교수 13명 등 총 4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GFD는 명품강소기업을 대상으로 1사 전담 매니저로 1년간 활동하면서 각종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1~2개 기업을 맡아 전화상담은 물론, 수시로 기업을 방문해 현안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명품강소기업을 선정, 자금 지원과 기업 진단, 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는 기업에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GFD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48명이 활동했다.

유관기관 전문가로만 구성했던 인적 자원을 올해부터는 민간 전문 컨설턴트와 산학협력 교수 등으로 확대한 전문가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업은 기술 또는 경영분야 등 전문가 선택 폭이 넓어지고, 필요시 1사 전담 GFD 외에도 전문가단 내 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경제부시장은 “GFD는 명품강소기업이 특화된 경쟁력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순환역 역할을 해줄 분들이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게 GFD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트럼프 “김정은 만남, 결실 없으면 회담장 나와버릴 것”

북 비핵화 자신감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몇 주 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대북 특사로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5월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성과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기대

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한이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한국민에게 마땅한 일이며 운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

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최대의 압박 작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세계 전역에서 핵무기를 종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회담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가 있는 동안 회담에서 결실이 없으면 나는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나 우리가 해온 것을 계속하겠다. 그러나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씩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